

##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침에 대한 태도의 성차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진희 · 윤가현

###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Sleeping in Separate Rooms” in Response to Marital Conflict

Jinhee Park,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sleeping in separate rooms (SSR) as a means of deal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to explore the reasons why participants agreed or disagreed with SSR.

**Materials and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were 616 married people (300 men, 316 women) aged 30 to 89 years and currently lived with their spouses in the same house. They were asked to assess their attitudes towards SSR using a Likert scale from 0 (strongly disagree) to 10 (strongly agree). Two separate SSR questions were given to them: one for the respondents themselves and the other for couples in general.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SSR. Men generally disagreed with SSR, with a negligi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parate SSR cases ( $p > .05$ ). However, women agreed with SSR, especially with the question about the respondents themselves ( $p < .01$ ).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agreeing with SSR was to alleviate conflict, while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disagreeing was related to sexual issues, which show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Conclusions:**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the SSR were found, and the differences were examined in the context of social exchange theor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sexual interactive and communicative patterns of the couples who were sleeping in separate rooms were not explored.

**Key Words:** Gender differences, Marital conflicts, Sex, Sleeping in separate rooms

## 서론

부부가 함께 자야 한다는 것 (sharing a bed)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관습이자 의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함께 잠을 자지 않은 경우[별침(別寢)<sup>a</sup>으로 칭함]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수면 습관이나 형태로 인한 별침이다. 미국수

접수일자: 2011년 8월 29일, 수정일자: (1차) 2011년 10월 3일, (2차) 2011년 10월 14일, 게재일자: 2011년 10월 17일  
교신저자: 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 500-757  
Tel: 062-530-2655, Fax: 062-530-2659  
E-mail: ghyoun@chonnam.ac.kr

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의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75%의 성인들이 밤에 수면 도중 수시로 깨거나 코를 고는데, 그러한 이유로 네 쌍의 부부 중 한 쌍이 별침한다.<sup>1</sup> 배우자의 수면습관(코골이, 자주 뒤척거림, TV시청 혹은 다른 활동으로 늦은 취침 등) 때문에 수면 방해받는 부부들 중 약 1/3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이나 결혼만족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up>2</sup> 배우자의 수면습관 때문에 방해를 받을 경우 수면의 질 저하나 부부관계의 악화 방지를 위해 서로 별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지만,<sup>3</sup> 무조건 별침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자면서 상대방과 이런 어려움을 논할수록 오히려 수면이나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up>4</sup>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가의 여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 평가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갈등수준이나 성행위(sexual act)와도 관련성이 크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의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연구는 수면, 부부 갈등 및 치료, 결혼생활 상담 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지만, 부부 별침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즉, 2005년도까지의 Medline 검색자료 약 94,000편의 연구들 중에서 수면을 다룬 연구가 약 42.6%, 부부갈등 연구가 약 36.2%, 부부치료 및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가 약 21.3%이었지만, 부부의 수면을 다룬 연구는 약 0.02%에 불과했으며, PsycINFO® 검색자료에서도 수면에 대한 연구가 약 21.8%, 부부갈등 연구가 약 28.6%, 부부치료 및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가 약 49.7%인 반면, 부부의 수면을 다룬 연구는 약 0.03%에 불과했다.<sup>5</sup> 물론 여기에서 부부의 수면을 다룬 연구마저도 부부 갈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갈등으로 인하여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들이 연구의 일부로 보고되고 있지만,<sup>6</sup>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들이 최근 예비연구를 실시해본 결과, 우리나라 부부의 별침 이유로는 배우자의 고약한 잠버릇, 자녀양육(예, 아이울음)이나 교육, 체질의 차이(예, 따뜻하거나 시원한 방 선호), 술 냄새, 생활리듬의 차이, 부부갈등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부부갈등 때문에 별침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에 해당되었다.<sup>7</sup> 또 응답

자들의 일부에게는 별침의 찬반 이유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이유들의 상당수가 성행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일부 남성은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성행위를 하게 되면 부인이 금방 달라진다 또는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면 쉽게 화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별침을 반대했으며, 일부 여성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관심 감소로 외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별침으로 인해서 남편의 성적욕구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별침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sup>8</sup> 역시 부부싸움 이후 어쩔 수 없이 함께 잘 경우에는 남편의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있었다.<sup>8,9</sup> 이에 본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가 갈등을 경험할 때 대처형식으로 별침하는 것에 관한 찬반 태도 및 그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그 이유들 중에서 성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부부 별침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경우와 일반부부의 경우로 나누어서 측정했다.

## 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세부터 89세까지의 남성 300명(Mean age=51.07세, SD=14.93) 및 여성 316명(Mean age=49.61세, SD=12.24)이었으며, 이들은 조사 시점을 토대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주말부부가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 2. 태도 측정

자료 수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했으며, 질문 내용은 부부갈등으로 별침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찬성 또는 반대)를 일반부부의 경우와 본인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 별침에 대한 찬반 태도는 Likert식 11점 척도[반대(=0)로부터 찬성(=10)까지임]로 측정했으며, 분석에서는 0~4점을 반대, 5점은 중립 그리고 6~10점을 찬성으로 처리했다. 태도를 응답한 이후에는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나열한 여러 항목들(감정완화 및 시간필요, 성격차이, 편안함, 부부의무, 습관화,

\*일본에서는 부부가 갈등 등의 이유로 함께 잠을 자지 않은 경우를 부부 별침이라고 부름.

이혼 걱정, 자녀 교육, 기타)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빈칸에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유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을 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질문지의 응답은 자기보고식이었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또는 글을 읽기가 불편한 연장자들에게는 연구자가 질문지를 읽어주면서 응답하도록 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일대일 면접에 의한 경우가 약 70% 그리고 2~4인 규모의 소집단으로 실시한 방법이 약 30% 정도였다. 대부분 질문지를 받은 즉시 곧바로 응답을 했으며, 설명을 포함해서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나 모두 20분 미만이었다. 자료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 3. 통계 분석

부부갈등 대처방식으로서의 별침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본인과 타인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for Window 15.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  검증 (독립성 검증)을 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결 과

### 1. 부부 별침에 대한 찬반 비율

일반부부와 본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한 부부 별침에 대한 태도를 성별에 따라서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부부가 별침하는 경우에서 성별에 따른 찬반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chi^2=20.29$ ,  $df=2$ ,  $p<.001$ ). 즉, 반대 비율은 여성 (55.1%)보다 남성 (71.7%)에서 더 높았으나, 중립 비율은 여성 (16.5%)보다 남성 (7.7%)에서 더 낮았다. 본인의 별침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chi^2=53.93$ ,  $df=2$ ,  $p<.001$ ). 즉, 반대 비율은 여성 (44.0%)보다 남성 (73.0%)에서 더 높았으나, 중립

Table 1. Rate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with SSR by gender [unit: % (n)]

	SSR for couples in general		SSR for the respondent's own relationship	
	Male	Female	Male	Female
Agree	20.7 (62)	28.5 (90)	19.0 (57)	42.4 (134)
Neutral	7.7 (23)	16.5 (52)	8.0 (24)	13.6 (43)
Disagree	71.7 (215)	55.1 (174)	73.0 (219)	44.0 (139)
	$\chi^{2a}=20.29^{\dagger}$	$\chi^{2b}=53.93^{\dagger}$	$\chi^{2c}=0.27$	$\chi^{2d}=13.42^*$

SSR: Sleeping in separate rooms.

<sup>a</sup> $\chi^2$  test of independence: male vs. female SSR for couple in general, <sup>b</sup> $\chi^2$  test of independence: male vs. female SSR for the respondent's own relationship, <sup>c</sup> $\chi^2$  test of independence: couples in general vs. respondents's own relationship in males,

<sup>d</sup> $\chi^2$  test of independence: couples in general vs. respondents's own relationship in females.

\* $p<.01$ , <sup>†</sup> $p<.001$ .

Table 2. Rate of agreement with SSR for the respondent and in general [unit: n (%)]

SSR for couples in general		SSR for the respondent's own relationship			Total
		Disagree	Neutral	Agree	
Disagree	Male	197 (91.6)	5 (2.3)	13 (6.0)	215 (100)
	Female	118 (67.8)	8 (4.6)	48 (27.6)	174 (100)
Neutral	Male	6 (26.1)	16 (69.6)	1 (4.3)	23 (100)
	Female	11 (21.2)	32 (61.5)	9 (17.3)	52 (100)
Agree	Male	16 (25.8)	3 (4.8)	43 (69.4)	62 (100)
	Female	10 (11.1)	3 (3.3)	77 (85.6)	90 (100)

SSR: Sleeping in separate rooms.

비율은 여성 (13.6%)보다 남성 (8.0%)에서 그리고 찬성 비율도 여성 (42.4%)보다 남성 (19.0%)에서 더 낮았다.

별침의 대상이 일반부부인지 본인인지에 따른 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1), 남성들은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 $\chi^2=0.27$ ,  $df=2$ , n.s.), 여성들은 찬성, 중립 및 반대를 선택한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 $\chi^2=13.42$ ,  $df=2$ ,  $p<.01$ ). 일반부부 별침에 반대했던 반응이 본인 별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세부적인 예로 살펴보면 (Table 2), 남성들의 경우 일반부부의 별침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던 215명 중에서 197명 (91.6%)이 본인의 별침에도 반대했듯이 반응 일치율이 높았다 (본인의 별침에 대해서 13명은 찬성 그리고 5명은 중립으로 바뀜).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일반부부의 별침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던 174명 중에서 118명 (67.8%)만이 본인의 별침에 반대했다 (본인의 별침에 대해서 48명은 찬성 그리고 8명은 중립으로 바뀜).

## 2. 부부 별침에 대한 찬성 이유

일반부부 별침에 찬성했던 152명 (남 62명, 여 90명) 및 본인 별침에 찬성했던 191명 (남 57명, 여 134명)이 선택한 항목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태도 문항에만 응답을 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일반부부 별침의 경우 남 30.6%, 여 34.4%; 본인 별침의 경우 남 35.1%, 여 29.9%)를 포함시키더라도 별침을 찬성하는 이유들 중에서 ‘감정완화 및 시간필요’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또 일반부부의 별침보다 본인의 별침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응답 내용에서는 성차가 별로 없었는데, 남녀 대부분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화가 더 나는 등

감정이 더 격해지기 때문에 별침을 찬성한다는 또 서로 격한 감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별침을 찬성한다는 것들이었다.

부부 별침의 이유를 ‘성격차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이는 여성보다도 남성에서 훨씬 더 높았지만, 남녀 공히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다를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별침의 이유를 ‘편안함’으로 선택한 비율은 10% 정도였는데, 일반부부 별침이나 본인 별침 모두 성차가 크지 않았으나 편안함의 내용에서는 성차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본인 별침의 경우 ‘편안함’으로 선택한 6명의 남성들 중에서 5명은 서로 다툼 후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다고 응답했지만, 1명은 서로 마음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반면 여성들은 13명 중에서 9명은 마음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3명은 배우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신체 일부라도 접촉되는 것이 싫어서 별침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1명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성행위 기회를 박탈하여 고통스럽게 해주기 위해 별침을 원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부부 갈등 이후 성행위로 그 갈등을 쉽게 대처하려는 남성들의 믿음이 싫어서 별침을 찬성한다는 응답이었다.

## 3. 부부 별침에 대한 반대 이유

일반부부 별침에 반대했던 389명 (남 215명, 여 174명) 및 본인 별침에 반대했던 358명 (남 219명, 여 139명)이 선택한 항목의 결과를 소개한 내용이 Table 4에 제시되었다. 태도 문항에만 응답을 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일반부부 별침의 경우 남 38.1%, 여 36.8%; 본인 별침의 경우 남 39.3%, 여 44.6%)를 포함시키더라도 부부 별침을 반대하는 항목 중에서 남녀 모두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Table 3. Reasons for agreement) with SSR [unit: % (n)]

	SSR for couples in general		SSR for the respondent's own relationship	
	Male	Female	Male	Female
No answer	30.6 (19)	34.4 (31)	35.1 (20)	29.9 (40)
Soothing a grudge	43.5 (27)	46.7 (42)	45.6 (26)	59.0 (79)
Disparity in character	16.1 (10)	6.7 (6)	8.8 (5)	1.5 (2)
Staying in comfort	9.7 (6)	12.2 (11)	10.5 (6)	9.7 (13)
Total	100.0 (62)	100.0 (90)	100.0 (57)	100.0 (134)

SSR: Sleeping in separate rooms.

Table 4. Reasons for disagreeing with SSR [unit: % (n)]

	SSR for couples in general		SSR for the respondent's own relationship	
	Male	Female	Male	Female
No answer	38.1 (82)	36.8 (64)	39.3 (86)	44.6 (62)
Marital duty	5.6 (12)	4.0 (7)	7.3 (16)	7.9 (11)
Habitation	2.8 (6)	1.7 (3)	2.7 (6)	0.7 (1)
Divorce	6.5 (14)	7.5 (13)	5.0 (11)	7.2 (10)
Education	0.9 (2)	0.6 (1)	0.9 (2)	0.7 (1)
Other	2.8 (6)	1.2 (2)	5.0 (11)	1.4 (2)
Sexual acts	43.3 (93)	48.3 (84)	39.7 (87)	37.4 (52)
Total	100.0 (215)	100.0 (174)	100.0 (219)	100.0 (139)

SSR: Sleeping in separate rooms.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부부의무, 습관화, 이혼 걱정, 자녀 교육, 기타 등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부의무는 부부가 싸워도 한방에서 자야 한다는 다소 성적인 의미를 함축시킨 관습이나 규범을 거론한 것인데, 이를 선택한 비율이나 서술 내용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그러나 부부의무를 선택한 비율은 일반부부보다도 본인의 별침에서 약간 더 높았다. 또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별침을 쉽게 택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별침하게 되는 습관화를 걱정한다는 응답이 약 3%정도 있었으며, 별침을 자주 하다 보면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별침을 반대한다는 반응도 7%정도 있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들은 별침이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들 중에서 본인 별침의 경우 별침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으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응답이 11명 남성들 중에서 7명, 여성은 2명 모두였고, 나머지 4명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싫다거나 밤에 응급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별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기술하였다.

별침을 반대하는 항목 중에서 남녀 모두 성행위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부적인 응답 내용에 있어서는 성차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본인 별침의 경우 87명의 남성들 중에서 80명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서 부부가 싸웠더라도 한 이불 덮고 자면 또는 살을 맞대고 자면 쉽게 풀어진다고 기술하였다. 좀더 노골적인 표현으로는 부인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면 부인의 화가 쉽게 풀린다고 기술

한 남성도 상당수였다. 또 7명의 남성들은 별침하게 되면 부인과의 성행위 기회가 감소하면서 성적으로 욕구 불만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별침을 반대한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여성들의 별침 반대 이유는 성행위와 관련되지만 남성들의 입장하고는 다소 달랐다. 예를 들면, 본인 별침의 경우 52명의 여성들 중에서 48명은 별침하게 되면 남편과의 대화 기회가 감소하고 성행위를 하지 못한 남편의 욕구 불만이 커지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성행위 기회를 제공하여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4명의 여성들은 별침을 하다 보면 남편의 외도 가능성이 커지고 본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남편 마음이 완전히 멀어져 버릴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별침을 반대하기도 했다.

## 고 찰

부부가 함께 잠을 자는가의 여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이나 부부의 갈등수준, 성행위와도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수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수면 습관이나 형태 및 수면의 질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이나 치료 그리고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시도되었지만, 부부 갈등으로 인한 부부의 수면형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를 토대로 부부 갈등의 대처형식으로 별침하는 것에 관한 찬반 태도 및 이유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들 중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성행위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부부 별침을 일반부부의 경우와 본인의 경우로 나누어 측정했을 때 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성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즉, 남성들은 일반부부든 본인이든 상관없이 두 경우 모두 별침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들은 일반부부보다 본인의 별침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도 성행위를 더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별침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남성들이 별침으로 인한 성행위 기회 상실을 더 우려하면서 별침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둘째, 부부 별침을 찬성하는 비율에서는 성차가 거의 없었지만, 반대하는 이유에서는 성차가 두드러졌다. 별침을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서도 성행위를 선택한 비율은 거의 비슷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차가 있었다. 즉, 부부 갈등이 성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남녀 모두 일치하지만, 성행위를 보는 입장은 상당히 달랐다. 이 부분은 성행위를 교환적인 인간관계에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성적 상호작용을 할 때 성은 여성이 소유하는 자원 (resources)이며, 남성은 그 자원을 얻기 위해 유형 (예, 선물 등) 또는 무형 (예, 기쁨, 사랑의 메시지 등)의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남성이 그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여성이 그 대가로 성을 쉽게 또는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성을 무기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서 남성을 조정하는 것이다.<sup>10</sup>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화가 나 있는 남편에게 성행위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남편의 욕구 불만이 더 커져서 결국 본인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성적 요구나 접근에 쉽게 응해주거나 본인이 성행위를 유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화도 풀어진다고 믿으며 또 그와 같은 믿음이 남성에게도 통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원인이나 책임이 남성들에게 있을 경우 남성들은 무조건 성행위로 부인을 만족시켜주면 부인의 화가 풀리면서 화해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화해 방법을 받아들여서 화해를 하느냐의 여부는 여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여성들은 부부 갈등이 남편으로 인해 발

생했을 경우 남편에게 성행위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성적 욕구 불만이 더 쌓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이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행위 여부를 조절하는 행위는 바로 성을 여성이 소유하는 재원으로 여기는 사회교환이론의 기본원리에 따라 파생된 것이다.<sup>10</sup>

이상의 연구결과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이나 부부관계의 질을 위해서 별침이 필요한 부부가 있다고 했지만,<sup>3</sup> 부부 갈등의 대처방식으로서의 별침은 부부 갈등 및 성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결론을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침 상태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별침이 이루어졌고, 별침의 상황에서 부부간에 의사소통이나 성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경험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부부 갈등으로 인한 별침에 대한 태도를 일반부부의 경우와 본인의 경우로 나누어 측정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성차가 드러났다. 남성들은 일반부부든 본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보다 더 높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본인의 별침에서의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 별침을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서 남녀 모두 성행위와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성행위를 보는 관점에서는 성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별침 상태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성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Swanson LM, Arnedt JT, Rosekind MR, Belenky G, Balkin TJ, Drake C. Sleep disorders and work performance: findings from the 2008 National Sleep Foundation Sleep in America poll. J Sleep Res 2011; 20:487-94
- 2) Billmann SJ, Ware JC.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of untreated sleep apneic men. Sleep Med 2002;3:

55-9

- 3) Troxel WM. It's more than sex: exploring the dyadic nature of sleep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sychosom Med* 2010;72:578-86
- 4) Troxel WM, Robles TF, Hall M, Buysse DJ. Marital quality and the marital bed: examining the covariation between relationship quality and sleep. *Sleep Med Rev* 2007;11:389-404
- 5) Rosenblatt, P. Two in a bed: the social system of couple bed sharing.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 6) Youn G. Marital and sexual conflicts in elderly Korean people. *J Sex Marital Ther* 2009;35:230-8
- 7) Park J, Youn G. Sleeping in separate rooms: Is it a good solution to marital conflicts for the middle-aged older couples? *Proceedings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Seoul, Korea, 2010*;304
- 8) Park J, Youn G. 夫婦間葛藤による家庭内別居における就寝のあり方に對する意識: 中年世代と老年世代の比較. *Jpn J Gerontol Suppl* 2011;33, abstract 263
- 9) Cadorna E. Sexual perception and behavior: gender differences among married Ilocanos. *Int J Behav Cog Educ Psychol Sci* 2009;1:15-24
- 10) Baumeister R. *Social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2001;5-8